

고성경찰서 학교폭력 근절대책회의



지난 14일 고성경찰서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고성경찰서(서장 이용완)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경찰서 2층 열린마루에서 고성군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각급 학교장, 경찰협력단체장,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완 고성경찰서장은 “최근 도가니 영화를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우리 관내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경찰을 포함한 관련 단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우리는 병아리 교통경찰”

간성어린이집 원생 교통안전캠페인



지난 11일 간성어린이집 원생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어린이 교통안전 조기 교육 및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위해 간성어린이집(원장 이원자) 원생 48명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교통경찰 복장을 착용한 어린이들이 교통질서 지키기 선서식을 가진데 이어 거리행진 캠페인과 교통안전 관련 동요 부르기 등 체험학습으로 진행됐다. 최광호 기자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지난 14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간성 거진 대진 죽왕 천진 등 5개 초교에서 아동과 여성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고성군 여성자율방범대 이정순 대장과 대원 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홍보책자와 호신용 경보기 700개를 전달했다. 최광호 기자

지종산삼 절취 심마니 검거

고성경찰서, 고성 농민이 채취한 50년생 3뿌리 속초 심마니가 훔쳐

고성지역의 한 농민이 한계령에서 채취한 50년생 지종산삼(사진, 시가 1,800만원)을 절취한 속초지역의 심마니가 경찰에 검거됐다.

고성경찰서는 토성면 인흥리 차모씨(48세, 농업)가 20여일전 한계령 6부능선에서 채취한 50년생 지종산삼 3뿌리를 훔친 혐의로 심마니 이모씨(50세, 속초시 영랑동)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동료 심마니들에게 채취한 지종산삼을 자랑삼아 보여 준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차씨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에 나선 결과 12일 오후 4시40분경 인흥리 박모씨의 집 앞 노상에서 이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 차씨가 물건을 찾은만큼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산삼의 종류는 보통 야생인 삼(야생삼), 지종삼, 천종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야생삼은 보통 20~100만원선에 거래되고, 지종인삼은 야생삼의 10배, 천종인삼은 지종인삼의 10배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광호 기자

서울 하늘 아래 함께 어울린 ‘고성인’

제3회 재경고성군민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거진읍 종합우승

제3회 재경고성군민회(회장 지승연)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가 지난 9일 서울 등촌중학교에서 재경군민회 회원과 고성지역 기관사 회단체장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현내면, 간성읍, 거진읍, 죽왕·토성면 등 4개팀으로 구성된 이날 체육대회 결과 거진읍이 종합우승, 죽왕·토성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축구, 족구, 계주, 여자 패럴티킥, 줄다리기 등의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경품추첨, 고향음식 맛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의를 다졌다.



참석자 명단(재경고성군민회 제공) 송훈석 국회의원, 한봉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전 강원도부지사), 황중국 고성군수, 문명호 고성군의회의장, 박호

거진읍 종합우승, 죽왕·토성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축구, 족구, 계주, 여자 패럴티킥, 줄다리기 등의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경품추첨, 고향음식 맛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의를 다졌다.

거진읍 종합우승, 죽왕·토성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축구, 족구, 계주, 여자 패럴티킥, 줄다리기 등의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경품추첨, 고향음식 맛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의를 다졌다.

최광호 기자

해양오염신고 포상금 최고 3백만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법제화 ... 사실관계 확인 후 30일 이내 지급

기름유출 및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종전 최고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기름·유해 액체물질 및 폐기물 등의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고 3백만

원으로 상향됐다.

해경은 그동안 해양오염신고 포상금을 해양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최고 2백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가까운 해양경찰서 및 지자체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해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오염물질과 배출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최광호 기자